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 윤 정

2014년 8월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양 윤 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양윤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국문초록>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양 윤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부대생활 스트레스, 부대적응, 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의무경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 부대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복무중인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탄력성 척도, 군 생활 스트레스척도, 군 생활 적응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유의표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 총 348부를 최종 분석자료에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20.0에 의해 빈도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및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고,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1982)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본 논문은 201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경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 부대적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계급에 따른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에 차이는 없는 반면, 탄력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 및 진로기대 수준에 따라 집단 간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 부대적응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에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간에는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탄력성과 부대적응에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셋째,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탄력성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 차원으로, 개인 내적 보호요인인 탄력성 증진 방안을 모색할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고, 그에 따른 실천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대원들이 그들의 임무의 내용 및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개입과 직무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배치를 통해 대원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적극적인 인사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대원들의 자기계발 여건의 최대한 보장, 유용한 진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로 전문가 활용, 감정조절 프로그램 및 낙관성 등의 긍정심리 기반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휘요원들이 탄력성과 같은 개인내적 보호요인을 강화시키는 방식의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5
1. 의무경찰	5
2. 부대생활스트레스	10
3. 탄력성	13
4. 부대적응	15
5. 선행연구 검토	17
III. 연구방법	24
1. 연구모형	24
2. 연구대상	24
3. 연구도구	26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8
IV. 연구결과 및 해석	30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30
2.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의 상관관계	32
3.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	34
4.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35
5. 탄력성이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	36
6.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38

V. 논의 및 결론	41
참고문헌	49
Abstract	58
부 록	61

표 목 차

표 II-1. 의무경찰 연혁	6
표 III-1. 일반적 특성	25
표 III-2. 부대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구성과 신뢰도	27
표 III-3. 탄력성 척도의 구성과 신뢰도	27
표 III-4. 부대적응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8
표 IV-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31
표 IV-2. 부대생활 스트레스, 부대적응, 탄력성의 상관관계	33
표 IV-3. 부대적응에 대한 부대생활 스트레스의 단순회귀분석	34
표 IV-4. 부대적응에 대한 부대생활 스트레스의 중다회귀분석	34
표 IV-5. 탄력성에 대한 부대생활 스트레스의 단순회귀분석	35
표 IV-6. 탄력성에 대한 부대생활 스트레스의 중다회귀분석	36
표 IV-7. 부대적응에 대한 탄력성의 단순회귀분석	37
표 IV-8. 부대적응에 대한 탄력성의 중다회귀분석	37
표 IV-9.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39
표 IV-10.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검증	40

그림 목 차

그림 III-1. 연구모형	24
그림 IV-1.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4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청년기에 속한 대다수의 남성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 일정기간동안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 일원이 되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상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청년시기에 있어서 군복무는 가족을 떠나 자신이 자라온 성장배경과는 전혀 다른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과업에 갖게 하고(장경숙, 2007), 가족과의 분리, 급격한 신체적 움직임의 증가, 강한 통제와 규율에 대한 복종, 수면패턴의 변화, 책임수행의 의무, 지속적인 긴장들을 의미한다(정희정, 2008; 이성열, 2011 재인용). 또한 청년기에 해당하는 신세대 병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심리적, 행위적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함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규율과 통제가 요구되는 군대환경은 아직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있는 병사들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정지희, 2007; 오명자, 박희현, 이주희, 권재한, 2013 재인용).

최근 복무중인 병사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자유롭고 개성적인 삶을 추구하고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생활이 풍요를 경험한 세대로서 군사적 가치와 상충하는 면이 많아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경험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은 병사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우울감을 조성하기도 하며, 자기비하 및 무기력감에 휩싸이게 하여 정신건강을 해치고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구승신, 2006). 이러한 우울증상은 근무지 이탈,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많은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심우섭, 2008). 병사들의 군생활 부적응은 병사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조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군복무 부적응 문제는 개인 그 이상의 것이 되기 때문에 장병들의 적응을 돕는 일이 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심윤기, 김완일, 2013).

병사의 군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윤희(1991)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병사일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적 호소가 증가하며 더불어 성과와 군 생활 만족도가 감소한다고 하였고(유혜경, 2012 재인용), 군 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과 절망감이 높고(김동연, 2010), 병사의 무망감, 군 생활의 스트레스는 우울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혜석, 김정은, 2010).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높은 스트레스는 군 생활 적응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승신, 2004; 장경숙, 2007; 김효영, 2008; 이성열, 2011; 최은진, 박희현, 2012; 유혜경, 2012; 엄덕희, 2013; 오명자 외, 2013).

최근에는 위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문제를 보이지 않으며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강인한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는 탄력성(resilience)으로 알려진 심리적 자원을 들 수 있다(Tugade & Fredrickson, 2004; 이연실, 2013 재인용).

Masten, Best와 Garmezy(1990)은 탄력성을 매우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거나 급성 또는 만성적인 주요한 생활스트레스 사건에 잘 대처하거나 외상적인 사건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보이는 현상으로 정의한다(정은옥, 2006).

또한 Masten(2007)은 탄력성이 적응이나 발달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삶의 성장을 나타내는 긍정적 산물이라고 하였다(전지경, 양명숙, 2013).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탄력성이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고, 정신건강이 양호하며(정은옥, 2006),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연수, 2003; 최지현, 2008; 신지현, 2014). 정승기(2006)는 병영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군범죄 성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자아탄력성은 병영스트레스가 군 범죄 성향에 주는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이혜영(2011)은 병사들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군 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오현철(2012)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은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와 적응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적응에 있어 탄력성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병사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군 생활 스트레스는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심리적 특성인 탄력성이 생활 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적응에는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때 병사들의 탄력성 수준에 따라 군 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일반병사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져 온 반면, 전환복무²⁾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의무경찰³⁾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탄력성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의무경찰의 부대적응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전·의경⁴⁾도 군인과 같은 군복무에 임하는 신분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의 경우 훈련 등 일련의 계획성 있는 부대생활을 하는 반면 전·의경은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송병호, 2006). 또한 이들의 임무인 대간첩 작전 및 각종 시위 진압 작전에의 투입, 야간 방범순찰, 상황대기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관계에서 오는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은 더욱 심각한 수준임에 분명하다. 이렇듯 특수한 조직상황과 업무특성 등으로 구타·가혹행위 등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자살·복무이탈 등 군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상균, 2011). 학술적 관심이 일반인들이나 국가의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때, 전·의경들의 부대적응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가 미미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전·의경들의 문제가 방치되어 왔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정승아, 2012). 이에,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한 부대적응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무경찰의 부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탄력성과 스트레스를 선정하였다.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이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 2)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신분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 3) 의무경찰이라 함은 전투경찰설치법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4조의8)
- 4)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6조(호칭)에서 '작전전경과 의무경찰을 통합한 전투경찰순경을 전경으로 호칭하고, 작전전경은 계급별로 호칭하며 의무경찰은 계급에 불구하고 의경으로 호칭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투경찰순경 중 작전전경을 전경, 의무경찰을 의경이라 부르며 이 둘을 통합하여 전·의경이라고 부른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의무경찰의 부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을 선정하여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의무경찰의 일반적 특성(계급, 건강상태, 진로기대수준)에 따라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 1-1. 의무경찰의 계급에 따라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의무경찰이 지각한 건강상태에 따라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의무경찰의 진로기대 수준에 따라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가설 2-1. 부대생활 스트레스는 부대적응과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3.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은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2. 탄력성은 부대적응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3-1.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무경찰

가. 의무경찰의 정의

의무경찰이란 제1국민역⁵⁾에 해당하는 병역대상자 중 경찰청장이 선발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 된 자중에서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하며, 대간첩 작전 및 각종 치안 보조 임무를 수행한다(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ap.police.go.kr).

이들은 병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육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전환복무 되어 임용되며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복무하게 되는데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국방부장관의 전환복무 해제에 따라 육군 병장 또는 전역조치 당시 계급에 상응하는 군의 계급으로 예비역에 편입된다(권영복, 이철호, 2012).

의무경찰의 창시는 후방지역 대간첩 작전 임무수행 및 치안유지를 위해 일반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투경찰대의 창설(1967.9.1)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일반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투경찰대가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대 간첩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 순경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1971년 7월 19일 기존 경찰관에서 병역입영 대상자 중 전투경찰순경으로 모집 충원하였다. 1980년 12월.22일 전투경찰설치법을 개정하여 전투경찰순경의 임무에 ‘치안업무 보조임무’를 추가하였고, 1981년 8월 10일부터 전투경찰순경을 징집된 현역병 중에서 배정받아 배치하기 시작했다. 1982년 12월 31일 지원제인 의무경찰이 창설되면서 전투경찰 순경은 국방부에서 배정하여 대간첩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전경과 경찰청에서 선발하여 치안업무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로 이원화되어 임무를 수행 하게

5)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되었고, 병역제도 개선정책에 따른 작전전경제도 폐지결정으로 마지막 전경 3211기의 전역(2013.9.25)과 동시에 의무경찰이 전투경찰대 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ap.police.go.kr).

표 I -1. 의무경찰 연혁

1960's	1967. 9. 1 대통령령 제 2,665호 전경운용제하에 의거 후방지역 대간첩 작전임무 수행 및 치안유지를 위해 전투경찰대 창설
1970's	1970. 12.31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 공포(법률 제2,248호) - 임무 : 대 간첩 작전업무 수행 1971. 9. 10 기존 경찰관에서 병역입영 대상자 중 전투경찰 순경으로 모집 총원 1975. 12. 31 경비업무 수행 및 경비지역 내 검문권 신설(기동대 및 검문소 배치)
1980's	1980. 12. 22 치안업무 보조 신설 1982. 12. 31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법률 제 3,629) 전투경찰을 작전 전경과 의무경찰로 구분 “의무경찰제도”신설 (작전전경 : 국방부에서 배정, 의무경찰 : 경찰청에서 선발) 1983. 1~3월 의무경찰 최초입영 : 1983. 2. 4 1983. 5 17 전환복무 1989. 4. 20 전투경찰순경의 주된 임무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 예방과 진압업무를 상호 지원 수행토록 개정 (전투경찰순경관리규정, 개정-내무부 훈련 961호)
2010's	2013. 9. 25 '12. 1월 작전전경 폐지결정으로 마지막 전경 3211기 전역. 의무경찰이 전투경찰대의 전 임무 수행

출처 :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ap.police.go.kr

의무경찰의 법적근거는 병역법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1항, 의무경찰 모집의 근거가 되는 전투경찰설치법 제2조의3 제2항이다. 전투경찰순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이 있으며, 경찰기동대와 방범순찰대의 관리를 위해 경찰청훈령으로 기동대관리규칙과 방순대 관리규칙이 있다.

나. 의무경찰의 신분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3조에 규정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입영⁶⁾하여 규정된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환복무 된 전투경찰순경의 신분이 군인인지 경찰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544판결)는 이들이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신분은 군인이 아니라 경찰로 보고 있다. 이러한 법원 판례에 따라 복무과정 전반을 보게 되면, 군인에서 전환복무를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에서 복무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복무가 해제되어 예비군으로의 신분적 지위가 변경됨을 알 수 있다(권영복, 이철호, 2012 재인용).

그러나 전투경찰순경의 신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는 달리 여러 연구에서는 이들의 신분에 대해 군인이면서 경찰이라는 이중적인 신분으로 기술하고 있다.

조진영(2012)은 전·의경 조직의 특성에서 전·의경 대원들은 경찰과 군인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정승아(2012)는 전·의경은 군인 신분으로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독특하면서도 이중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유재두(2005), 송병호(2006)의 연구에서는 전투경찰의 근무환경 특성 중 전투경찰의 신분에 관련하여 기술하면서 군인신분으로서 국민과 사회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또 다른 견해로 신성원(2004)은 전·의경은 의무복무라는 요소를 고려할 때 군인도 아니고 직업 경찰관도 아닌 중간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다. 의무경찰의 주요임무 및 임무특성

1) 의무경찰의 주요임무

의무경찰의 임무는 크게 대간첩 작전 임무와 치안보조 임무로 나뉜다. 대간첩 작전 임무는 주로 전경대, 112타격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간첩 작전은 내륙지역 간첩 침투시 방호선 설정 및 수색, 섬멸 작전을 실시하고, 대테러 활동은

6) '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주로 국가중요시설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각종 테러대비 훈련 및 수색 활동을 한다. 치안업무보조 임무로는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안전과 질서유지 및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대처하는 집회·시위 관리업무가 있다. 그리고 방법 순찰 등 범죄 예방활동과 음주운전 단속보조 등의 교통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ap.police.go.kr).

2) 의무경찰 임무의 특성

일반 군대의 임무가 평상시에는 주로 계획된 훈련상황이지만, 의무경찰들은 대부분 실전상황에 직면하며, 당면한 실전상황에 대처를 해야 함으로 보통 정규군보다 업무상의 긴장감이 심하다. 또한, 일반 군인과 달리 의무경찰의 임무는 사회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접하는 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되는 경우 입대 전 자신이 속한 집단 또는 지지하던 주장과 대처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유재두, 2006). 이는 의무경찰대원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대처되는 일을 해야 하는 역할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 의무경찰부대의 특성

전투경찰설치법의 제정으로 일반경찰관으로 구성되었던 전투경찰이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병력자원으로 전환되면서 전투경찰부대는 군대식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⁷⁾(김상균, 2011 재인용). 군대식 조직이란 계급과 직책, 권위를 바탕으로 한 위계적인 집단이면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수한 상황과 조직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이다. 또한 조직규모가 심대하고,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일반사회와는 다른 강한 강제적 규율관계의 특성을 갖고 있다(박동수, 2007). 국내법상 대간첩 작전과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투경찰제도는 국제법상 군대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제도는 경찰이면서도 군대이기도 하다는 양면성을 띠게 된다(김상균, 2011).

의무경찰은 정규군에 준하는 계급을 부여받아 현역군인과 유사한 형태로 병영 생활을 한다(김상균, 송병호 2006; 조진영, 2012 재인용). 경찰조직에 소속되어

7) 남한사회의 법 현실과 이데올로기 비판, 민주법학 창간호, 1989, 38쪽 : 김상균, 2011 재인용

경찰신분으로 특수한 성격의 경찰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군인과 상이하
지만, 구조적 측면에서 이경·일경·상경·수경으로 이루어진 위계질서가 엄격한
계급 구조를 취하고 있고, 전경대·기동대·방순대 등은 대대·중대·소대·분대로
인력이 편성되며, 내무생활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일반 군대 조직과 유사하여
일반 직원인 경찰공무원들과는 다른 자체적인 군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보통
이다. 이들은 병역의무를 위한 전환복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군대와 유사한
부대특성을 가지고 있다(오규철, 2009).

이에 따라 군 조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반적인 면에서 군 조직은
대규모 조직이며, 군의 목적인 국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에 비해
매우 강제적이고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단체와는 달리 국가보위
라는 규범적 가치 추구를 하는 규범적인 조직이다. 집단적인 면에서는 명령에 따
라서 움직이고 계급별로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행동하는 단체로 군 조직의 지속
적인 규범 습득 훈련과정, 공동체 유대 속에서 강한 연대의식 형성을 갖는 집단
성이 매우 강한 집단이다. 또한 상하 및 동료간에 정신적 유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념과 주의에 절대 신봉해야 하며, 효율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휘계통을 엄격히 확립, 명령체계 준수를 강조하는 매우 권위적인 구조를 지닌
위계 조직이다(육군본부, 1999; 구승신, 2004 재인용).

또한 개인의 융통성이 제한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통제된 환경 하에서
집단생활을 해야 하며 봉사와 희생정신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고 노력의 대가가
사회와 같이 금전적으로 지불되지 않는다. 엄격한 규범과 높은 절도를 요구하고
계급에 대한 대우는 있으나 연령과 관련한 대우는 없으며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시
된다. 인내, 책임, 질서가 요구되어지고 상명하복의 관계가 엄격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윤주태, 2003).

이상과 같이 강제적 규범과 집단성을 요구하고, 강력한 위계구조를 가진 군
조직과 같은 의무경찰부대의 특성은 자유롭고 개성있는 삶을 추구하는 신세대
청년들과 상충되는 면이 많아 대원들은 입영 자체를 스트레스로 지각할 수 있고,
이들이 의무경찰 부대의 조직적 특성을 바르게 수용하지 못하거나 이를 불합리한
요소로 인식할 경우 부대생활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2. 부대생활 스트레스

가.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나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Lazarus & Folkman(1984)은 접근방식에 따라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으로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극적인 사건을 말하며 신경학적 특성에서 일어나는 자극 및 배고픔이나 성적 역동 등 인간의 본능적인 자극까지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 관점에서 Lazarus 와 Cohen(1997)은 스트레스로 여겨지는 환경적 사건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화로서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로 느껴지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사건들이 포함되며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번째는 한 사람이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질병, 직장에서의 해고, 이혼 등이 포함된다. 세번째는 일상적인 문제로 업무책임, 외로움 등 개인을 힘들게 만드는 사소한 사건들이다(임제희, 2013 재인용).

둘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유기체의 생리적, 심리적 반응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적응을 요하는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본다(소영원, 2006).

셋째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개인이 가진 자원에 부담이 되거나 그 한계를 초과하며,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과 그 개인 사이의 특정한 관계로 정의하면서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은 생활사건 자체이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관점이다(안미숙, 2010).

앞의 두가지 접근은 개인을 수동적으로 보는 반면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관점은 다른 두 개념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한다(강공덕, 2007). 이처럼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과정으로서 스트레스를 정의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복잡한 반응 패턴과 적응적 결과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며,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에 따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성공적인 적응의 경험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적응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해줄 수 있는 상호작용적인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유은애, 2008).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로, 이종목(1990) 등은 스트레스의 체험정도는 물리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의 고유한 성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얼마나 적절한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정승기, 2006 재인용). 또한 정애리(2009)는 스트레스 자체가 긴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요소의 상호작용과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지각이 긴장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나. 부대생활 스트레스

군 생활 스트레스는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말하며, 이는 군의 조직적 특성과 관련되어 나타난다(정희정, 2006). 이러한 군 생활 스트레스는 군의 조직적 특성을 갖춘 의무경찰부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무경찰대원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동일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Lazarus 와 Folkman(1986)는 스트레스를 일반적으로 그 빈도와 발생사건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중대한 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병사들에게 있어 군 입대는 개인에 따라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심리적 충격을 주는 중대한 생활사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대 내에서 대원들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부정적 생활사건(외로움, 분실, 다툼, 실수 등)들로 인해

부대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지 못할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전환될 수 있고(김진주, 2011),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지속되거나 심각해지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임성택, 김진호, 정의석, 2011) 점에서 결국에는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부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병사들에게 군 입대 자체가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적 군복무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구속감은 두가지 방향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의무적인 군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부정적이고 수동적, 소극적 마음과 미흡한 동기부여로, 적응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부대생활은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피해의식과 무망감이다. 군복무 기간을 인생의 공백기로 생각하여 비슷한 또래들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학업과 직장 등에서 자리잡아가는 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안과 무망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제대 후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급의 상하 구분 없이 생각하게 되는 불안 요인이다(김상균, 송경재, 2001; 정승기, 2006 재인용).

군 조직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은 적대감과 낮은 자존감, 완전주의적 사고, 우울 감정 등 심리관련 요인과, 조명, 소음, 온도, 공간설계 등의 환경관련 요인, 직업 요건, 조직구조, 부대원들의 역할경계, 경력발달, 지시사항 및 이행에의 갈등 등 조직 및 업무관련 요인, 능력 및 경험, 욕구 및 가치관, 자기통제성, 생활 사건 등과 같은 부대원 신상관련 요인, 그리고 가족, 경제적 형편, 부대외적 인간 관계와 같은 군대조직 외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육군본부, 1999; 박계연, 2010 재인용)

박현철(2001)은 군 생활 스트레스를 군 내부의 스트레스 원과 군 외부의 개인 스트레스 원으로 구분하였다. 그가 제시한 군 내부의 스트레스 원으로는 직무 요인, 역할 요인, 구성원 상호간 관계 요인으로 직무요인으로는 업무량(양적인 과다업무, 질적인 과다업무)과 육체적 위험을 들었고, 역할요인으로는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 과다를 제시하였으며 구성원 상호간 관계 요인으로는 낮은 직무나 낮은 사회적 지지체계요인, 동료간 · 상하간의 무관심, 관리 체계의 빈약성을 들었다. 군 외부의 스트레스 원으로는 본인과 관련된 가족, 친척, 친구, 이성친구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요인이다. 군 외부 스트레스 원은 병사들이 부대생활로 인한 사회

로부터의 소외, 고립과 관련되어지고, 사회적 고립은 결과적으로 정서적 문제, 우발적 사고, 질병,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르게 하는데 군대에서 발생하는 부대생활의 부적응, 일탈행동, 자살 등의 문제가 이러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를 부대 내부의 스트레스 요인인 직무스트레스, 역할스트레스, 구성원간의 관계스트레스와 부대 외부차원인 외부스트레스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탄력성(Resilience)

국내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Resilience’를 ‘탄력성’, ‘극복력’, ‘회복력’, ‘적응유연성’, ‘자아탄력성’ 등으로 부르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Resilience’를 탄력성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탄력성(resilience)은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역경을 겪으면서 개인이 타격을 입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되돌리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asten & Garmezy, 1995). 이들의 정의 외에도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이 탄력성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개념적 정의를 종합해보면 탄력성은 ‘위험요인에 노출’,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핵심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오현철, 2012 재인용).

홍은숙(2006)은 탄력성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두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성격의 한 유형으로 보는 관점으로 탄력성을 개인적 성향으로 보기 때문에 ‘ego-resiliency’라고 칭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변화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보는 관점으로 탄력성을 하나의 역동적인 과정(process)으로 규정하였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탄력성을 정의한 Block과 Block(1980)은 탄력성의 개념과 구별하여 ego라는 접두사를 붙여 자아탄력성(ego-resiliency)라고 명명하면서 자아탄력성을 성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자아통제를 이룰 수 있을 때 탄력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을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이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이며 넓은 의미로는 내·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은 효율적인 적응을 위해 상황적 필요에 따라 충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설명하는 개념이며(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당면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아통제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시 조절 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김중운, 최미숙 2013 재인용).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탄력성은 지원적 환경의 맥락에서 선천적 요인들과 경험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간에 걸쳐 발달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임으로 특별한 능력이기 보다는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어야 하며(장휘숙, 2001), 이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수한 속성이 아니라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기제이다(Masten, 2001).

Garmezy(1993)는 개인의 탄력성을 높은 위협이나 만성 스트레스,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모든 개인에게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특징이라고 하였다. Rutter(1985)는 탄력성을 어려운 생애 사건의 영향에 대응하려는 행동을 포함하는 개인의 내적, 외적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역동적 과정이라 하였다.

탄력성의 역동성과 관련하여 그것의 항상성을 지지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탄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Oerter, 1999; 홍은숙, 2006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앞에서 살펴본 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탄력성을 역경, 충격적·부정적 사건, 일상적 스트레스 등의 위험요인으로 부터 잘 극복해 나가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하겠다. 또한 사회적 맥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변화 가능한 과정으로서의 관점으로 탄력성을 바라보고자 한다.

탄력적인 사람들의 성격 및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울에 취약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긍정적 정서를 보이고,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더라도 이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성이 낮다고 하였다(심지연, 2013). 또한 장휘숙(2001)은 탄력적인 개인들은 높은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인지적·사회적 기술을 갖추고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적임을 알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김택호, 서미, 조한익(2005)은 탄력성 집단의 청소년들은 부적응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위험사건의 경험을 통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증가하고, 타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이 증진되며, 가족에 대한 소중한 친밀감을 더욱 느끼게 되고, 삶에 대한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바뀌는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탄력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적응적임을 볼 때, 탄력성이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추론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 측정도구로 Atsushi 등(2002)이 개발하고, 민동일(2007)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겠다. 이는 Atsushi 등(2002)이 Kumpfer(1999)의 탄력성 내적 요인(예: 꿈, 목표, 인생의 목적, 인생의 존재의미, 숭고함, 독립성, 내적통제의 소재, 희망, 낙관주의, 의지결정, 인내력 등)을 참고하여 심리적 탄력성 척도를 개발한 것으로, 그 하위요인으로는 탄력적인 사람들의 특성인 흥미와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으로 구성되어졌다(정은옥, 2006; 민동일, 2007 재인용).

4. 부대적응

적응이란 개인이 그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며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적이며, 역동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요구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환경과 만족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뜻한다(Lazarus, 1976; 오현철, 2012 재인용).

군 조직 적응이란 병사들이 군 조직문화의 한 부분이 되고 그에 흡수되는 과정으로 이는 병사들이 군 조직 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회화와 병사들 스스로

군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역할개인화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화와 역할개인화는 서로 독립적인 과정이 아니어서 우선 조직사회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조직 내에서 개인인 말은 바 임무와 책임을 스스로 담당하게 되는 역할 개인화가 뒤따른다. 조직사회화란 개인인 조직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치, 규범 그리고 행동양식으로 습득하도록 교화되고 훈련되는 과정이고, 역할개인화는 조직 내에서 개인의 위치와 조직이 개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본질을 인식하고 실제로 자신의 말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Jablin, 1987; 김현수, 1995; 구승신, 2004 재인용).

Stouffer(1949)는 군대에서의 적응이란 사기(morale)을 뜻하는 집단의 개념이 아니라 개개인이 군대생활에 행복감을 느끼고, 군대임무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며, 직무와 지위에 만족하여 군대에 대하여 시인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김효영, 2008 재인용). 또한 이윤희(1963)는 군대적응을 입대 후 실제 근무지에서 생활적응을 뜻하는 것으로 생리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을 의미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함으로써 군 조직 내에서 부여하는 직책과 직무에 만족하고, 군 조직의 여러 규범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태수(1981)는 군대에서의 적응이란 어디까지나 군대적인 관점에서 본 적응으로, 군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응은 군대 생활에 행복감을 느끼고 군대 임무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며 직무와 지위에 만족하며 군대에 시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규칙을 위반하거나 영창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구승신(2004)의 연구에서는 군생활의 적응요인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 등을 의미하는 심신만족, 역할 수행에 있어서 자발성과 자신감 등을 의미하는 임무수행의지, 직책에 대한 관심과 가치부여 등을 의미하는 직무만족, 조직운영, 공정한 대우, 후생복지, 리더쉽 등을 의미하는 군 조직 환경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의무경찰부대는 군의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무경찰의 부대적응은 군대에서의 적응과 동일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군 맥락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무경찰의 부대적응을 부대생활과 직무에 만족하고 임무에 사명감을 가지며, 조직의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생활관 생활의 만족, 임무수행의지, 직책과 직무만족, 조직 환경의 만족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겠다.

한편, 군 생활 적응에서 적응의 반응을 소극적 반응, 적극적 반응, 부정적 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소극적 반응으로 표면상으로는 계급과 직책에 따른 권위를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군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병사들로 군에서 문제를 일으켜보아야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다.

둘째, 적극적 반응으로, 군대의 강제적이고 규범적인 가치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수용하려는 병사들의 반응이며 군에서의 어려운 경험이 장차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환경에 잘 적응하고 군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

셋째, 부정적 반응으로, 이들은 자신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가치관과 군 생활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매사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특히 간부들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킬지 모른다(국방부 군종실, 2001; 김기현, 2009 재인용). 부정적인 반응의 의무경찰대원인 경우 부대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부대 부적응 문제는 부대 조직 특성상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 전체로의 문제로 확대됨으로 인해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도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5. 선행연구 검토

가.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홍국표(2013)는 전·의경의 폭력피해경험이 부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폭력피해경험이대적응 수준을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는 개인적 차원에서 체감하는 생활태도 및 만족도를 상세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휘요원의 자질향상, 감독체계 강화, 복지환경조성 등을 통해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박동수(2007)는 전·의경 폭행사건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폭행

사고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심인적·조직적·사회적 차원의 세부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면서 폭행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승아(2012)는 전·의경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부대 지휘요원들이 전·의경들의 욕구에 대한 이해가 그들이 겪는 군 생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므로 대원들이 욕구를 좌절시키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대원지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효영(1999)은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군 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에서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증가할수록 우울 및 신체증상도 증가하고, 직무수행능력이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나 자아통제감은 직무수행능력이나 군 생활 만족도의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 생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사회적 지지의 증진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김상균(2011)은 전·의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전·의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의경에 대한 정서적·환경적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고, 궁극적으로 전·의경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였다. 신성원(2004)은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의경을 중심으로 한 전·의경의 사기 증진에 관한 연구에서 전·의경의 사기는 직무수행과 직결됨으로 사기증진을 위해 전·의경의 의사존중, 처우개선 및 지휘부의 지속적인 관심, 충분한 자유시간과 휴식시간의 보장, 보수의 현실화, 종교활동의 보장, 고충처리 상담제 운영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전·의경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전·의경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살·자해, 복무이탈,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및 예방대책, 전·의경의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연구로(홍국표, 2013), 의무경찰의 부대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부대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연구는 일반 군인과 관련하여 활발히 연구되어진 주제이나,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그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엄덕희(2013)는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군 생활 스트레스가 병사들의 적응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스트레스 대처기법과 훈련이 군 조직 내부에서 실시될 필요성과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군 내부의 지지가 군 적응 향상에 중대한 요인이 되므로 병영내부의 지지체계를 확보하는 다방면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해석, 김정은(2010)은 병사의 무망감, 스트레스, 우울과의 관계에서 이들 요인들이 우울증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병사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상담접근을 담당할 민간인 상담원에 대한 필요성과 스트레스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지역사회, 학계,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인 계획 하에 병사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장경숙(2007)은 신세대 병사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은 정적관계가 있고,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에 부적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군 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스트레스 대처기법과 훈련의 필요성과 예방적 차원의 대처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전문사회복지사의 개입의 필요성과 군사회복지의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 외 다수의 논문에서 군 생활 스트레스가 군 생활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다(정희정, 2006; 김효영, 2008; 정윤경, 2011; 이태우, 2011; 이성열, 2011; 최은진, 박희현, 2012; 이대식, 2013; 유혜경, 2013).

다. 탄력성과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탄력성과 적응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탄력성과 적응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있음을 보고한 연구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지현, 2009; 김아림, 2010; 이옥형, 2012; 신지현, 201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명주, 2009; 박지혜, 2011; 김정민, 2012; 김혜선, 2013;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2013),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옥숙, 2011; 이임덕, 2012),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경희, 2010; 박명선, 2011;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 2012; 류민성, 2012),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배화옥, 2010; 송혜리, 2010; 서현지, 2011)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탄력성이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탄력성과 적응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된 반면 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탄력성관련 연구가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고,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까지 진행된 군 맥락에서 이루어진 부대적응과 탄력성에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현주(2012)는 군 장병의 자아탄력성과 부대적응도의 관계에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면서 장병들이 정서적으로 유능함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계급과 임무특성에 맞는 상담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오현철(2012)은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군 병사의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개인의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은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혜영(2011)의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라 군 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병사, 자아탄력성은 낮지만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병사, 사회적 지지는 적게 받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은 병사,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은 경우 순으로 군 생활 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하면서 병사들의 부대적응을 돕기 위해 병사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승기(2006)는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병영스트레스와 군 범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병영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군 범죄 성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자아탄력성이 병영스트레스가 군범죄 성향에 주는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병영스트레스와 군 범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병역관리 및 상담에 활용한다면 병사들의 유연한 적응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러 연구에서 적응에 있어서 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스트레스와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박새와(2012)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관계에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일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떨어지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사하였다.

김 연, 황혜정(2014)은 아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 및 교사와 또래로부터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거나 학업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할수록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아동의 탄력성인 활력성, 낙천성, 호기심 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그로 인해 아동이 위축되거나 우울, 불안,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임제희(2013)는 미취업 청년의 스트레스와 구직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 대처가 함께 매개효과를 내는 이중 매개경로가 유의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미취업 청년들은 낮은 자아탄력성을 가지며, 낮은 자아탄력성은 낮은 적극적 대처를, 낮은 적극적 대처는 결국 낮은 구직행동을 이끌어낸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가 탄력성을 낮추고, 낮은 탄력성이 회피중심의 대처를 증가시켜서 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의 관계를 탄력성이 매개한다는 기존의 연구(Li & Yang, 2009)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하였다.

장은옥 외(2010)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탄력성이 낮아짐으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 그 자체에는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탄력성이 부적관계를 갖는다는 결과와 스트레스와 여러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음이 보고되는 점으로 볼 때 스트레스와 탄력성 두 변인이 상호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스트레스, 탄력성,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부정적 사건이나 부정적 정서를 스트레스 범주로, 삶의 질, 직무만족, 심리적 안녕감을 적응의 범주에 포함시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순옥 외(2013)는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결과, 학교생활 적응에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은 자아탄력성, 학교 스트레스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아탄력성이 학교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임경희(2010)의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학교적응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원만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자아탄력성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모두 학교 적응 및 생활 만족도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유정민(2012)은 중학생의 부적정서,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연구에서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부적정서에 영향을 받고 부적정서가 많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부적정서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유의미한 매개변수라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배화옥(2010)은 아동의 학대경험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탄력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노은(2011)은 대학생의 스트레스, 탄력성, 삶의 질의 관계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그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탄력성은 그들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호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옥형(2012)은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침과 동시에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간접효과를 갖는 보호요인으로서 생활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완충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강명희, 이수연(2013)은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학업스트레스가 낮으면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유은애(2005)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정서적 적응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김행숙(201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와 탄력성, 적응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의무경찰의 부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을 선정하여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서 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I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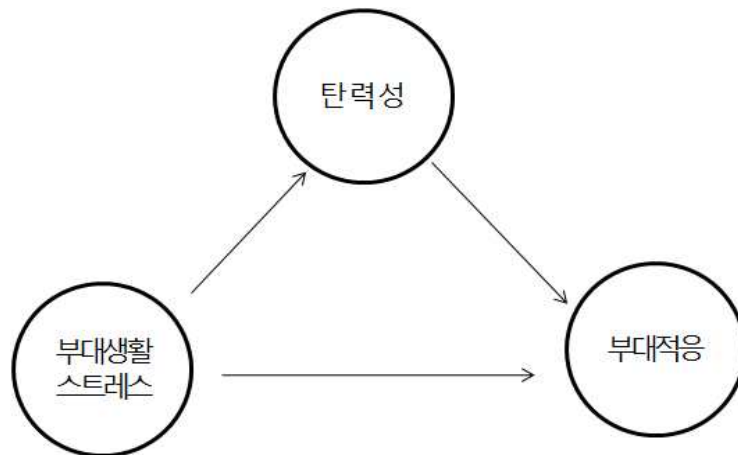


그림 III-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방경찰청 산하에서 복무중인 1000여명의 의무경찰 중 소대별 10-15명을 기준으로 총 인원에 30%에 해당하는 365명을 유의표집 하였다.

조사 자료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3개 문항, 부대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20개 문항, 탄력성에 관한 20개 문항, 부대적응에 관한 20개 문항으로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설문지는 현장에서 100% 회수하였다. 회수된 총 365부의 설문지 중 설문의 일부만 응답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부를 제외하고 총 34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 계급, 건강상태, 진로 기대수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일반적 특성

		(N=348)	
	변인	빈도(%)	전체
계급	이경	50(14.4)	348(100)
	일경	140(40.2)	
	상경	115(33.0)	
	수경	43(12.4)	
건강상태	아주 건강하다	155(44.5)	348(100)
	대체로 건강하다	173(49.7)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	19(5.5)	
	아주 건강하지 않다	1(0.3)	
진로 기대수준	매우 희망적이다	123(35.3)	348(100)
	희망적이다	150(43.1)	
	보통이다	67(19.3)	
	절망적이다	7(2.0)	
	매우 절망적이다	1(0.3)	

조사대상자의 계급을 살펴보면, 일경 40.2%(140명), 상경 33%(115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경 14.4%(50명), 수경 12.4%(43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건강하다 49.7%(173명)’, ‘아주 건강하다 44.5%(155명)’,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 5.5%(19명)’, ‘아주 건강하지 않다. 0.3%(1명)’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의경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기대수준을 살펴보면, ‘비교적 희망적이다 43.1%(150명)’, ‘매우 희망적이다 35.3%(123명)’, ‘보통이다 19.3%(67명)’, ‘절망적이다 2%(7명)’, ‘매우 절망적이다 0.3%(1명)’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의무경찰이 앞으로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보고하였다.

3. 연구도구

가. 부대생활 스트레스 척도

의무경찰이 부대생활 중 겪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박현철(2001)이 개발한 군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현철은 한국생산성본부(1993)에서 ‘산업인력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의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스트레스 요인 척도를 우리나라 군부대 실정에 맞게 개발하였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척도는 다음과 같다.

- (1) 역할스트레스 :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과다
- (2) 외부스트레스 : 가족 및 이성, 친구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 (3) 직무스트레스 : 군대에서의 직무특성에서의 스트레스
- (4) 관계스트레스 : 부대 내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등

각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박현철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7$ 로 나타났고, 구승신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9$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9$ 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표 III-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I-2. 부대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역할 스트레스	1, 4, 7, 13, 15	5	.776
외부 스트레스	3, 8, 9, 14, 16	5	.753
직무 스트레스	2, 6, 10, 11, 12, 20	6	.767
관계 스트레스	5,17,18,19	4	.826
전체	1~20	20	.919

나. 탄력성 척도

탄력성 검사는 Atsushi 등(2002)이 보고한 심리적 탄력성척도인 'Resilience Scale' 영어판(Atsushi et al., 2003)을 민동일(2007)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졌고, 하위요인으로는 흥미와 다양성(6문항), 감정조절(8문항), 긍정적 미래지향성(6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tsushi 등(2002)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고, 민동일(200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7$ 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표 III-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I-3. 탄력성 척도의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흥미와 다양성	1, 4, 8, 12, 17, 18	6	.823
감정조절	2, 5, 7, 9, 11, 13, 19, 20	8	.786
긍정적 미래지향성	3, 6, 10, 14, 15, 16	6	.852
전체	1~20	20	.897

다. 부대적응 척도

의무경찰의 부대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배종열(2010)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Stauffer(1949)가 만든 군 생활 적응척도를 이윤희(1963)가 번역하고 신태수(1981)가 수정 사용한 척도를 배종열(2010)이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하위요인으로는 생활의 만족(3문항), 임무수행의지(2문항), 직책과 직무만족(8문항), 조직 환경의 만족(7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신태수(198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고, 배종열(20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9$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0$ 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표 III-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I-4. 부대적응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생활관 생활의 만족	1, 2, 3	3	.705
임무수행의지	4, 5	2	.672
직책과 직무만족	6, 7, 8, 9, 10, 11, 12, 13	8	.873
조직 환경의 만족	14, 15, 16, 17, 18, 19, 20	7	.851
전체	1~20	20	.900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넷째,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이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 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1982)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 부대적응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배경변수 중 건강상태와 진로 기대수준을 범주화 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상태의 경우 ‘아주 건강하다’와 ‘대체로 건강하다’를 ‘건강하다(328명, 94.3%)’로, ‘아주 건강하지 않다’와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를 ‘건강하지 않다(20명, 5.7%)’로 범주화 하였고, 진로 기대수준인 경우 ‘매우 희망적이다’와 ‘대체로 희망적이다’를 ‘희망적’으로, ‘매우 절망적이다’와 ‘대체로 절망적이다’를 ‘절망적’으로 범주화하여 ‘희망적(273명, 4%)’, ‘보통(67명, 19.3%)’, ‘절망적(8명, 2.3%)’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t-test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부대생활 스트레스는 보통이하의 수준을 보였고, 부대적응 및 탄력성인 경우 보통이상의 수준 나타났다.

계급에 따른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계급에 따라 부대생활 스트레스($F=2.563, p=.055$) 및 부대적응($F=.653, p=.582$)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탄력성($F=5.713, p=.00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경(a)과 수경(d), 일경(b)과 수경(d)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건강상태에 따라 부대생활 스트레스($t=-4.603, p=.000$) 및 탄력성($t=2.057, p=.040$), 부대적응($t=4.917, p=.000$)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건강하다고 보고한 집단이 건강하지 않다고 보고한 집단보다 부대생활 스트레스는 낮은 반면 탄력성 및 부대적응은 높게 나타났다.

진로 기대수준에 대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대생활 스트레스($F=7.514, p=.001$) 및 탄력성($F=41.029, p=.000$), 부대적응

($F=12.150$, $p=.000$)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대생활 스트레스에서 진로 기대수준이 보통인 집단(b)과 희망적인 집단(a)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탄력성에서는 진로 기대수준이 희망적인 집단(a)과 보통인 집단(b)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부대적응에서는 진로 기대수준이 희망적인 집단(a)과 보통인 집단(b), 희망적인 집단(a)과 절망적인 집단(c)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V-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N=348)		
변인		부대생활 스트레스 MSD)	탄력성 MSD)	부대적응 MSD)
계급	이경(a)	2.25(.68)	4.01(.51)	3.35(.59)
	일경(b)	2.23(.64)	3.84(.51)	3.37(.61)
	상경(c)	2.13(.68)	3.77(.49)	3.31(.63)
	수경(d)	2.46(.70)	3.56(.52)	3.22(.72)
		F=2.563, $p=.055$	F=5.713, $p=.001$	F=.653, $p=.582$
사후검정		-	a>d, b>d	-
건강상태	건강하다	2.19(.66)	3.83(.59)	3.37(.60)
	건강하지 않다	2.88(.51)	3.52(.45)	2.68(.66)
		t=-4.603, $p=.000$	t=2.057 $p=.040$	t=4.917 $p=.000$
진로 기대수준	희망적(a)	2.16(.66)	3.93(.46)	3.41(.61)
	보통(b)	2.44(.60)	3.40(.43)	3.07(.57)
	절망적(c)	2.74(.37)	3.04(.77)	2.74(.63)
		F=7.514, $p=.001$	F=41.029, $p=.000$	F=12.150, $p=.000$
사후검정		b>a	a>b	a>b, a>c

2.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의 상관관계

군 생활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로 선정된 각 변수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r=-.545,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대적응과 부대생활 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역할 스트레스($r=-.559, p<.01$), 외부 스트레스($r=-.359, p<.01$), 직무스트레스($r=-.485, p<.01$), 관계스트레스($r=-.481, p<.0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과 부대적응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r=.426,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대적응과 탄력성 하위요인인 흥미와 다양성($r=.326, p<.01$), 감정조절($r=.388, p<.01$), 긍정적 미래지향성($r=.344, p<.0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간에는 부적 상관관계($r=-.371,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력성과 부대생활 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역할 스트레스($r=-.390, p<.01$), 외부 스트레스($r=-.301, p<.01$), 직무스트레스($r=-.255, p<.01$), 관계 스트레스($r=-.357, p<.0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부대생활 스트레스, 부대적응, 탄력성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역할 스트레스	1													
2.외부 스트레스	.626**	1												
3.직무 스트레스	.722**	.586**	1											
4.관계 스트레스	.735**	.598**	.695**	1										
5.부대생활 스트레스 전체	.890**	.815**	.885**	.859**	1									
6.생활관생활만족	-.429**	-.332**	-.410**	-.369**	-.448**	1								
7.임무수행 의지	-.161**	-.102	-.165**	-.058	-.146**	.260**	1							
8.직책과 직무만족	-.488**	-.300**	-.407**	-.427**	-.468**	.496**	.290**	1						
9.조직환경의 만족	-.494**	-.311**	-.423**	-.450**	-.484**	.441**	.241**	.584**	1					
10.부대적응전체	-.559**	-.359**	-.485**	-.481**	-.545**	.658**	.470**	.887**	.839**	1				
11.흥미와다양성	-.239**	-.192**	-.121*	-.205**	-.214**	.381**	.163**	.279**	.212**	.326**	1			
12.감정조절	-.398**	-.288**	-.312**	-.372**	-.393**	.431**	.119*	.334**	.291**	.388**	.531**	1		
13.긍정적미래지향성	-.321**	-.265**	-.184**	-.301**	-.304**	.437**	.103	.269**	.268**	.344**	.607**	.487**	1	
14.탄력성 전체	-.390**	-.301**	-.255**	-.357**	-.371**	.501**	.154**	.356**	.311**	.426**	.842**	.830**	.826**	1
평균	2.25	2.06	2.51	1.99	2.23	3.67	2.20	3.44	3.37	3.33	3.80	3.62	4.09	3.81
표준편차	.77	.79	.77	.78	.67	.74	1.10	.78	.76	.63	.65	.58	.66	.52

* $p < .05$, ** $p < .01$, *** $p < .001$

3.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부대적응 미치는 영향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3, 표 IV-4와 같다.

표 IV-3. 부대적응에 대한 부대생활 스트레스의 단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	p	통계량
부대생활 스트레스	상수	.098		45.559	.000	$R=.545,$ $R^2=.297,$ 수정된 $R^2=.295,$
	부대적응	.042	-.545	-12.082	.000	$F=145.984,$ $p=.000$

표 IV-3을 보면,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부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2.082, p=.000$). 즉,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부대적응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1$ 에서 145.984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297$ 로 29.7%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IV-4. 부대적응에 대한 부대생활 스트레스의 중다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p	공차한계
부대적응	상수	.099	-	45.280	.000	-
	역할스트레스	.061	-.398	-5.338	.000	.350
	외부스트레스	.047	.042	.711	.477	.550
	직무스트레스	.056	-.144	-2.078	.038	.408
	관계스트레스	.057	-.113	-1.600	.110	.388

$R=.576, R^2=.332, \text{수정된 } R^2=.324,$
 $F=42.538, p=.000, \text{Durbin-Watson}=1.852$

표 IV-4를 보면, 부대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역할 스트레스($t=-5.338$, $p=.000$)와 직무 스트레스($t=-2.078$, $p=.000$)는 부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부 스트레스($t=.711$, $p=.477$)와 관계 스트레스($t=-1.600$, $p=.110$)는 부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1$ 에서 42.538이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332$ 으로 33.2%의 설명력을 보였다. Durbin-Watson은 1.852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차한계가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5, 표 IV-6과 같다.

표 IV-5. 탄력성에 대한 부대생활 스트레스의 단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	p	통계량
	상수	.090		49.366	.000	$R=.371$, $R^2=.138$, 수정된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039	-.371	-7.438	.000	$R^2=.135$, F=55.316, $p=.000$

표 IV-5를 보면,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7.438$, $p=.000$). 즉,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높을 때 탄력성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1$ 에서 55.316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138$ 로 13.8%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IV-6. 탄력성에 대한 부대생활 스트레스의 중다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p	공차한계
탄력성	상수	.091	-	48.126	.000	-
	역할스트레스	.057	-.306	-3.684	.000	.350
	외부스트레스	.044	-.085	-1.282	.201	.550
	직무스트레스	.052	.140	1.816	.070	.408
	관계스트레스	.052	-.179	-2.267	.024	.388

$R=.416$, $R^2=.173$, 수정된 $R^2=.163$,
 $F=17.925$, $p=.000$, Durbin-Watson=2.030

표 IV-6을 보면, 부대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역할 스트레스($t=-3.684$, $p=.000$)와 관계 스트레스($t=-2.267$, $p=.024$)는 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부 스트레스($t=-1.282$, $p=.201$)와 직무 스트레스($t=1.816$, $p=.070$)는 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1$ 에서 17.925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173$ 로 17.3%의 설명력을 보였다. Durbin-Watson은 2.030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차한계가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탄력성이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과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7, 표 IV-8과 같다.

표 IV-7. 부대적응에 대한 탄력성의 단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	p	통계량
탄력성	상수	.225		6.124	.000	$R=.426$ $R^2=.182$, 수정된 $R^2=.179$,
	부대적응	.058	.426	8.760	.000	$F=76.731$, $p=.000$

표 IV-7를 보면, 탄력성이 부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8.760$, $p=.000$). 즉, 탄력성이 높으면 부대적응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1$ 에서 76.731이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182$ 으로 18.2%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IV-8. 부대적응에 대한 탄력성의 중다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p	공차한계
부대적응	상수	.225	-	6.014	.000	-
	흥미와 다양성	.063	.087	1.339	.181	.559
	감정조절	.064	.262	4.432	.000	.675
	긍정적 미래지향성	.059	.163	2.588	.010	.593

$R=.432$, $R^2=.186$, 수정된 $R^2=.179$,
 $F=26.267$, $p=.000$, Durbin-Watson=1.714

표 IV-8을 보면, 탄력성의 하위요인 감정조절($t=4.432$, $p=.000$)와 긍정적 미래지향성($t=2.588$, $p=.010$)은 부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흥미와 다양성($t=1.399$, $p=.181$)은 부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 .001$ 에서 26.267이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186$ 으로 18.6%의 설명력을 보였다. Durbin-Watson은 1.714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차한계가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5)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으며 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92)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독립변수가 오직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완전매개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반면에 세 번째 단계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두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보다 작게 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이므로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9과 같다.

표 IV-9.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N=348)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F	
1단계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289	.039	-.371	-7.438***	.138	55.316***
2단계	부대생활 스트레스	부대적응	-.509	.042	-.545	-12.082***	.297	145.984***
3단계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	-.419	.043	-.448	-9.627***	.355	94.868***
			.312	.056	.260	5.574***		

* $p < .05$, ** $p < .01$, ***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독립변인인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71$, $p < .001$).

둘째, 독립변인인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부대적응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45$, $p < .001$).

셋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탄력성이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였다($\beta = .260$, $p < .001$). 그리고 이때 독립변인인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부대적응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beta = -.545$)보다 세 번째 방정식($\beta = -.448$)에서 감소하였으며, 의무경찰의 부대적응에 대한 설명력인 R²값 또한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됨으로써 29.7%(F=145.984, $p < .001$)에서 35.5%(F=94.868에서 $p < .0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탄력성은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에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부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해보기 위하여 단순매개한계치를 구하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IV-10, 그림 IV-1과 같다.

표 IV-10.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검증.

변수			X→M		M→Y		Sobel Test	
X (독립변수)	M (매개변수)	Y (종속변수)	B	SE	B	SE	Z	P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생활 적응	-.289	.039	.511	.058	-5.671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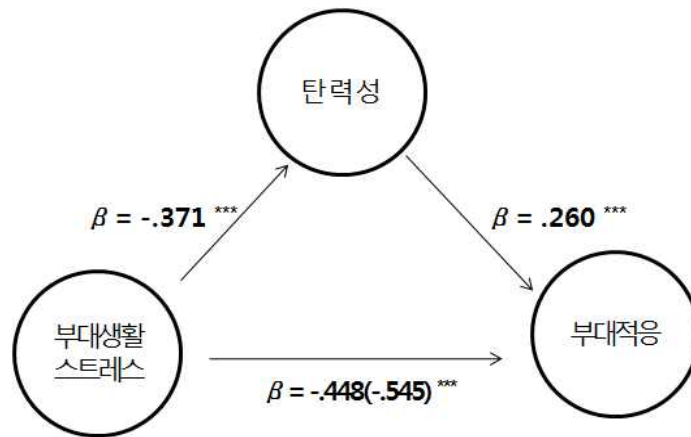


그림 IV-1 .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간의 관계에서 B값은 -.289, SE는 .039였으며, 탄력성과 부대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B값은 .511, SE는 .058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Sobel Test 한 결과, z값이 -5.671로 절대 값이 1.96보다 크게 나와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생활 적응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 부대적응, 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탄력성이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의무경찰의 일반적 특성(계급, 건강상태, 진로기대 수준)에 따라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첫째, 계급에 따른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및 부대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계급에 따라 부대생활 스트레스 및 부대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급에 따른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탄력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탄력성에 대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탄력성 수준이 이경이 수경보다 높았고, 일경이 수경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효영(1999)의 일경집단이 수경집단보다 스트레스 지각정도와 회피적인 대처방식이 높다는 연구, 오명자 등(2013)의 복무기간이 초기일수록, 계급이 낮을수록 군 생활 스트레스의 수준은 높고, 군 생활 적응과 낙관성은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장경숙(2008)의 계급이 낮을수록 군 생활을 잘한다는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고, 계급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인 정희정(2006), 금병규(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선행연구들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부대특성이나 설문조사시의 환경 등에서도 기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선후임을 분리하여 설문하는 등 설문지 작성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경조성이 필요하겠다.

둘째, 의무경찰대원이 지각한 건강상태에 따른 부대생활 스트레스 및 탄력성, 부대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진로 기대수준에 따라서도

부대생활 스트레스 및 탄력성, 부대적응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의무경찰이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진로기대 수준이 희망적일수록 부대생활 스트레스는 낮았고, 탄력성과 부대적응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진로가 희망적일수록 적응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서혜석, 이대식(2008), 구승신(2004)의 연구와 일치하고, 진로에 대해 확실할수록 군 생활 적응점수가 높다고 보고한 장경숙(2007), 정희정(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탄력적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성인 낙관성이 높으면 보다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결과(정혜연, 이정윤, 2009)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부대에서의 생활은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교육 및 훈련, 임무수행 등으로 인해 체력의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때 건강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체력을 요하는 교육, 훈련, 임무수행 등에 대해 심리적·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부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무경찰대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 및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들의 식단편성에서부터 개인위생 및 부대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 점검이 필요하겠다.

또한 정승아(2012)의 전·의경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의경들에게 있어서 근무나 훈련 자체보다 진로나 취업문제가 대원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는 진로기대수준이 낮을수록 군 생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로서, 대원들의 부대적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원들의 진로결정이나 진로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유용한 진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로전문 외부강사 활용 및 진로 적성검사 프로그램의 활용, 진로준비를 위한 공간 마련 등 부대 내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연구문제 2.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첫째,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엄덕희(2013), 유혜경(2012), 장경숙(2007), 구승신(2004) 등의 연구와 일치한다. 부대생활 스트레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역할 스트레스와 직무 스트레스는 부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부 스트레스와 관계 스트레스는 부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분석결과로는 이태우(2011)의 연구에서 직무 만족의 관계에 역할스트레스와 관계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고, 조직만족의 관계에서는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결과, 이성열(2011)의 연구에서 외부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역할, 직무, 관계스트레스가 부적이 영향을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선행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 역할갈등 및 역할 모호성에서 오는 역할 스트레스와 군의 직무특성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가 공통적으로 부대적응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청년들이 입영 후 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신분으로, 자신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책임과 임무들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자신감 결여, 갈등, 긴장, 불안 등으로 스트레스 상황 하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의무경찰부대가 갖는 군의 조직적 특성상 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요인 및 직무요인을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역할이나 직무가 개개인의 맞춤형 선택이 아니라 집단적 강제성을 띄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생활 부적응 대원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부대 내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스트레스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대에서의 예방적 개입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역할요인에 있어서 대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하고, 수행하는 역할의 필요성과 내용을 명확히 인지시킬 수 있는 정서적,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직무요인에 있어서는 대원들에게 직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자신감과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직무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둘째,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김 연, 황혜정(2014), 임제희(2013), 박새와(2012), 장은옥(2010) 등의 연구와 일치한다. 부대생활 스트레스 하위요인과 탄력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역할 스트레스와 관계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탄력성간에 부적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탄력성이 스트레스라는 위험요인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탄력성과 부대적응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력성이 부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오현철(2012), 유연웅(2012), 이혜영(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탄력적인 개인들은 높은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인지적·사회적 기술을 갖추고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적임을 알 수 있다고 보고한 장휘숙(2001)의 연구와 동일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대적응을 위한 예방적 개입 방안으로서 탄력성의 역할을 시사함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 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감정조절과 긍정적 미래지향성은 부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흥미와 다양성은 부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감정조절과 부대적응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감정조절을 잘할수록 부대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윤은경, 조윤득(2010)이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잘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그에 따른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여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며 나아가 잠재된 문제를 예방하고 경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이서정, 현명호(2008)의 연구에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누적시켜 개인의 안녕감과 바람직한 기능을 저해하여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 병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고한 내용과 동일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주로 일반적인 감정조절의 개념은 자기의 정서인식 뒤에 일어나는 분노, 충동적 감정 등의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절하는데 중점을 둔다(백미애, 2002). 따라서 감정조절능력이 부대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는 부대적응에 위험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감정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긍정적 미래지향성 역시 부대적응과 정적상관을 나타내는데 이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와 기대가 포함된 심리적 특성인 낙관성이나 희망과 맥락을 같이하는 개념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진로기대수준이 희망적일 때 군 생활 적응도가 높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병사의 희망이 다양한 군 생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을 높여주는 데 있어 긍정적인 중재변인임을 확인한 최은진, 박희현(2012)의 연구, 병사가 낙관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한 오명자 외(2013)의 연구 내용과 동일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낙관성, 희망 등과 같은 긍정심리 강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이 시사되는 바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원들이 미래에 대해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진로 전문가 활용 및 자기개발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집단적이고, 획일적, 폐쇄적인 군의 조직적 특성과 관련지어 볼 때 의무경찰 대원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대 내에서 흥미나 관심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흥미와 다양성이 부대적응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진 않았으나 탄력적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내적으로 다양한 방면의 경진대회나 문화대전의 개최,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대원들의 관심분야에 관련된 외부 강사의 활용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문제 3.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결과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생활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신지연, 2014), 병영스트레스가 군 범죄

성향에 주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그 영향력을 감소시킴을 확인한 연구(정승기, 2006), 극도의 긴장 상태인 시험상황에서 개인내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불안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박정희, 박정미, 2010)결과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높으면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낮아져 결국 우울, 불안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적응이 높아진다는 연구(유은애, 2008), 탄력성이 낮을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심리적 혹은 행동적 문제를 유발하거나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연구(김부남, 오현숙, 박용숙, 2011),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오현철, 2012)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를 탄력성이 부분매개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부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대생활 스트레스에 따라 부대적응이 달라지기도 하고, 부대생활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탄력성의 영향을 받아 부대생활 스트레스의 지각수준이 낮춰지고 그에 따라 부대적응을 증가시키는 경로가 있음이 시사되는 바이다.

이는, 의무경찰의 탄력성을 높이는 차원의 예방적 개입을 통해 부대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고 궁극에는 대원의 부대적응으로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탄력성에 대해 Masten(2007)은 적응이나 발달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삶의 성장을 나타내는 긍정적 산물이라고 하였다(전지경, 양명숙, 2013). 그리고 매개효과는 치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Baron과 Kenny(1986)는 매개변인이 환경적 개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최미례, 이인혜, 2003 재인용). 이런 점에서 볼 때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대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의무경찰대원들이 그들이 가진 개인내적 보호요인인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며 삶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부적응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나은 부대 생활을 위한 예방적 개입방안으로 개인내적 보호요인인 탄력성 증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따라, 탄력성 증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의무경찰대원들이 의무경찰의 임무의 내용 및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고, 직무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배치를 통해 대원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인사정책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대원들의 자기개발 여건의 최대한 보장하고, 각종 경진대회나 문화대전 등 다양한 활동의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하고 유용한 진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부 진로 전문가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충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20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노나 우울 등 부정적 감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조절 프로그램 및 낙관성 등 긍정 심리 기반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탄력성과 같은 개인내적 보호요인을 강화시키는 방식의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휘부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대적응 척도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모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척도로서 우리 군의 현실이나 의무경찰대원의 현실과는 이질적일 수 있다. 또한 부대생활 스트레스 척도 역시 의무경찰에 대한 척도가 아닌 일반 군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무경찰 실정에 맞게 스트레스 및 적응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제주도 지역의 의무경찰에 한정되어 연구결과에 있어 편향된 오류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전국단위의 의무경찰을 조사대상자로 표집설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 진행시 연구의 취지, 목적,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각자 자유로운 위치에서 실시하였으나, 후임과 선임을 구분배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후임대원들이 부대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설문문항에 솔직하게 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솔직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대적응을 위한 보호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고, 부대적응에는 여러 요인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것임으로 개인 내적·외적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대원들의 부대생활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부대적응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하는지 보다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사례 연구 및 종단적 방법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공덕(2007).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와 학교 적응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명희, 이수연(201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6), 265-293.
- 구승신(2004).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승신(2006). 신세대 병사의 정신건강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육군 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4, 64-93.
- 국방부 군종실(2001). **사고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백과**. 서울: 국방부
- 권영복, 이철호(2012). 전의경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4(6), 3-41.
- 금병규(2010). **군복무 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2009). **군복무 병사들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노은(2011). 대학생의 스트레스, 탄력성, 삶의 질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3(4), 1-19.
- 김동연(2010). **군 생활 스트레스가 군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 절망감, 삶의 이유,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주(2009).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부남, 오현숙, 박용숙(2011). 간호사의 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한국산업간호학회지**, 20(1), 14-23.
- 김상균, 송경재(2001). 스트레스와 군 범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육군3사관 학교 충성대연구소.
- 김상균, 송병호(2006). 의경의 부조리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복무환경에 문제점을

-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1(4), 73-110.
- 김상균(2011). 전의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6(1), 265-281.
- 김아림(2010).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강인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연, 황혜정(2014) 아동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령에 따른 탄력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21(1), 217-243.
- 김윤희(1991). **병사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2012). **가정의 위험요인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주(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 및 자살행동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운, 최미숙(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9), 45-68.
- 김택호, 서 미, 조한익(2005). 청소년의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에 따른 이점발견의 차이. **상담학연구**, 6(2), 515-529.
- 김행숙(2013). **초등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1995). 사병의 군조직 적응 촉진방안: 군교육제도를 중심으로(최종연구 보고서). **안보학술론집**, 6(2), 355-437.
- 김혜선(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반고와 특성화 고등학생의 비교**.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영(1999). **군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전·의경대원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영(2008). **군복무 스트레스에 따른 군생활의 적응: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민성(2012).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계연(2010). **신병의 자아탄력성 및 병영스트레스에 미치는 집단원예치료 프로그램**

-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수(2007). **전·의경 폭행사건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선(2011).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새와(2012).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희망감 및 사회적지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수(2003).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숙(2011).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 박정미(2010).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125-134.
- 박지혜(2011). **결손가정 청소년의 탄력성, 낙관성, 긍정적 환상과 심리사회적응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철(2001). **군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원,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종열(2010). **병사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화옥(2010).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14(2), 193-217.
- 백미애(2002). **부모의 정서표현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감정조절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현지(2012). **성폭력피해자의 귀인성향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석, 이대식(2008). 신세대 병사의 진로발달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6(1), 33-49.
- 서혜석, 김정은(2010). 병사의 무망감, 스트레스, 우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2(1), 123-144.

-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2013). 청소년의 학교생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49-70.
- 소영원(2006).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병호(2006). 한국 전·의경의 복무환경과 구타·가혹행위와의 관계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2), 1-32.
- 송혜리(2010).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경험 및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원(2004). 전·의경 사기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전북 지방경찰청 산하 전·의경을 중심으로. **대학원논문집 제33권**, 원광대학교대학원, 195-227.
- 신지현(2014).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태수(1981). **군대조직 구성원의 자아정체감과 군대생활에의 적응과의 연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우섭(2008). **개인상담시 타로카드가 신세대 장병의 우울 및 불안정서와 상담 회기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윤기, 김완일(2013). 군장병의 자기복잡성과 자아탄력성이 군복무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2), 1265-1284.
- 심지연(2013). **대학생의 진로 의식 성숙과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숙(2010). **직장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덕희(2013).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수도권지역 육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 제 11호**, 31-61.
- 임성택, 김진호, 정의석(2011).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완벽 성향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3), 243-260.
- 오규철(2009). 전·의경 의문사의 발생원인 분석: 심리·정신의학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5(2), 123-148.
- 오명자, 박희현, 이주희, 권재한(2013). **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의**

- 관계에서 낙관성의 중재효과. **상담학연구**, 14(2), 1051-1065.
- 오현철(2012).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군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1991). 스트레스 대처방안. **정신건강연구**, 10, 37-50.
- 유연웅(2012). 병사들의 군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군사복지학**, 5(12), 5-30.
- 유은애(2008)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통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두(2005). **한국 전·의경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민(2012). **중학생의 부적정서,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경(2012). 병사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군본부(1999). **병영스트레스 원인과 대책**. 대전: 육군본부, p 101.
- 윤은경, 조운득(2010). 노인의 감정조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4), 1429-1444.
- 윤주태(2003). “**군 조직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대식(2012). **육군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서정, 현명호(2008).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887-905.
- 이성열(2011), **군생활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정서적 환경 지각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실(2013). 탄력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6(4), 259-284.
- 이옥형(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지지가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이윤희(1963). **군대생활 적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임덕(2012). 특수교사의 회복탄력성, 낙관성, 긍정적 환상과 심리사회적응간의 관계: 중·고등학교 특수 학급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2012).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233-246.
- 이종목(1990). 직무스트레스 원인 결과 및 대책. 서울: 성원사.
- 이태우(2011). 신세대 장병의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12). 군장병의 자아탄력성과 부대 적응도의 관계.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2011). 병사들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경희(2010). 아동이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9(2), 217-233.
- 임제희(2013). 미취업 청년의 스트레스와 구직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숙(2007). 신세대병사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옥, 이승희,곽수란(2010).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을 매개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23-42.
- 장휘숙(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14(1), 113-127.
- 전지경, 양명숙(2013). 미혼커플관계 탄력성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4(1), 163-190.
- 정승기(2007).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병영스트레스와 군범죄 성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아(2012). 전의경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2(1), 175-196.
- 정애리(2009). 고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2011). 현역 병사들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병영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옥(2006). **심리적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희(2007). 병영생활적응력 및 전역예정자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군사회복지 비상-飛上」. 한국군사회복지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2007년 추계 세계학술대회 한국군사회복지학회 자료집. 59-67. **한국군사회복지학회**.
- 정혜연, 이정윤(2009). 청소년의 낙관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4), 2367-2381.
- 정희정(2006). **군 장병의 스트레스 대처유형과 군 생활 적응**.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정(2008). **집단내 연결망 간의 상호작용이 구성원의 조직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영(2012). **인지행동 음악치료가 전·의경 대원의 군 생활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래, 이인혜(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은지(2014). **탄력성의 국내 연구동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진, 박희현 (2012). 병사의 군생활 스트레스와 군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중재효과. **인간발달연구**, 19(3), 129-146.
- 최지현(2009).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화(2012).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삶의 의미를 매개변인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국표(2014). **전·의경의 폭력피해경험이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숙(2006).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Atsushi,O., Hitoshi,N, Shinji,N., & Motoyuki,K.(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olescent resilience Scale. *Japanese Journal of Counseling Science*. 35, 57-65.

- Atsushi,O., Hitoshi,N.,shinji,N.,& Motoyuki,K.(2003). Construct Validity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Scale. *Psychologica Report*, 93, 1217-122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ock, J.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5.
- Block, J. H., & Bol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Gruen, R. J.,& DeLongis, A(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Garmezy,N.(1993). Vulner ability and resilience. In C.C.Funder, R.D. Parke, C.Tomlinson-Keesey, & K.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evelopment* (pp.377-398). Washington,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azarus, R. S. & Cohen, J. B. (1977). Environmental stress. In I. Altman and J. F. Wohlwill(Eds), *Human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Current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Plenum.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 Co.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aptation* (3rd ed). New York: McGraw-Hill)

- Li, M. H., Yang Y. (2009). Determinants of problem solving, social support seeking, and avoidance: A path analytic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6, 155-176.
- Luther, S. S., & Cicchetti, D.,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rther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cian Psychology*, 56(3), 227-238.
- Masten, A. S. (2007). Resilience in developing systems: Progress and promise as the fourth wave ris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3), 921-930.
- Oerter, R. (1999). Klinische Entwicklung psychologie: zur notwendigen Integration zweier Fächer. In R. Oerter, C. vonHagan, G. Röper & G. Noam (Eds.), *Klinische Entwicklungspsychologie* (pp. 1-10). einheim: Beltz.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obel, M. E.(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290-312). SanFrancisco: Jossey-Bass.
- Stouffer, R. C. (1949). Science and Civilizatio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320-333.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 Life Stress and Adaptation of Auxiliary Policeman**

Yang, Yun Jung

Majored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University

Advised by Kim, Seong 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correlation between unit life stress, Adaptation, and resilience for Auxiliary Policeman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unit life stress and Adaptation to units. For this, subjects for inquiry were set up as follow:

Subject for inquiry 1: Is there any difference unit life stress, resilience, and Adaptation to units of Auxiliary Policema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ubject for inquiry 2: How are unit life stress, resilience, and Adaptation of Auxiliary Policeman correlated to each other?

Subject for inquiry 3: Does resilience have any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 life stress and Adaptation to units of Auxiliary Policeman?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purposeful sampling method by using questionnaires which consist of resilience scale, military life stress scale, and

* This paper is the master's thesis on pedagogy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Committee of Education, Jeju University on Aug. 2014.

Adaptation scale to units for Auxiliary Policeman who are on active service by belonging to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The total 348 copies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tic data. And for the analysis of data,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procedure to verify mediating effects suggested by Baron & Kenny(1985) were used by SPSS for Windows 20.0. And the method of Sobel(1982) was used to verify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gotte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result which verified differences of unit life stress, resilience, and Adapt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Auxiliary Policeman has found that there is no any difference in unit life stress and Adaptation according to ranks, whil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silience. There were differences in unit life stress, resilience, and Adaptation among groups according to health condition and career expectation levels.

Second, the result which verified the correlation among unit life stress, resilience, and Adaptation has been verified that Auxiliary Policeman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 in unit life stress and Adaptation,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unit life stress and resilience was shown, and there wa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Adaptation.

Third, the result which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 life stress and Adaptation has found that resilience has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As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was verif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 life stress and Adaptation which a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basis to search plans to increase resilience which is the personal internal protective factors with the dimension of preventive intervention to aim at Adaptations to unit life of Auxiliary Policeman. And practical proposals according to them are as follow:

First, educational intervention and active personnel policies which minimize stress of policemen through efficient personnel allocation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are required to make them recognize contents and the importance of their duties. And positive psychology-based programs including utilization of career experts, emotional control programs, and optimism should actively utilized to guarantee Auxiliary Policeman's self-development conditions as much as possible and provide useful career information for them.

And education should be done together to make commanding ag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intervention of the methods which strengthen individual internal protective factors like resilience.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 탄력성, 부대적응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본 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부대적응에 관한 상담과 방향 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의 문항들은 옳고 그름이 없이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임으로,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부대가 특정되지 않으며,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만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히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연구자 : 양 윤 정

※ 다음은 자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탄력성척도)

각 문항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2. 나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미래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새로운 것이나 독특한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5.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나는 쉽게 실증을 내지 않는다	1	2	3	4	5
8. 나는 다양한 방면에 흥미나 관심이 높다	1	2	3	4	5
9. 나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고자 한다	1	2	3	4	5
10. 나는 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1. 나는 분노조절이 잘 된다	1	2	3	4	5
12. 나는 다양한 것을 알고 싶어 한다	1	2	3	4	5
13. 나는 인내심이 강하다	1	2	3	4	5
14. 나는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다	1	2	3	4	5
15. 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6. 나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17. 나는 익숙하지 않은 일도 재미있게 한다	1	2	3	4	5
18. 나는 어려운 일을 잘 견딘다	1	2	3	4	5
19. 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흥미롭다	1	2	3	4	5
20. 나는 일시적 기분에 따라 행동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1	2	3	4	5

※ 여러분이 군 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	1	2	3	4	5
2. 남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한다.	1	2	3	4	5
3. 가정문제를 나의 힘으로 다룰 수 없어 힘들다.	1	2	3	4	5
4. 지금 해야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	2	3	4	5
5. 동료들이 나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1	2	3	4	5
6. 부대에서 허찮은 실수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7. 주위의 생활이 혼란스럽다.	1	2	3	4	5
8. 이성친구 또는 가족문제로 고민이 많다.	1	2	3	4	5
9. 집안 일들이 흔히 나빠지기는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	1	2	3	4	5
10. 근무시간 이외에도 일 걱정을 한다	1	2	3	4	5
11.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나 실수가 일어나기 쉽다.	1	2	3	4	5
12.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1	2	3	4	5
13. 부대에서 나의 신념과 반대되는 것을 해야만 한다.	1	2	3	4	5
14. 집안 일이 끊이지 않는다.	1	2	3	4	5
15.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16.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	1	2	3	4	5
17. 동료들은 항상 나에게 트집을 잡는다.	1	2	3	4	5
18. 부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고마워하지 않는다.	1	2	3	4	5
19. 정말로 걱정해 주어야 할 사람도 없거나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다.	1	2	3	4	5
20. 피로해도 쉴 수가 없다.	1	2	3	4	5

※ 여러분이 군 생활 중에서 느끼는 적응의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당하지 않다	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당 한다	매우 당 한다
1. 일반적으로 부대에서의 일상생활이 명랑하다.	1	2	3	4	5
2. 일반적으로 부대 업무 외에 틈나는 시간은 나의 개인적 발전을 위하여 보람 있게 쓰려고 애쓴다.	1	2	3	4	5
3. 요즈음 신체적 컨디션은 아주 좋다.	1	2	3	4	5
4. 모든 면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의무기간 이상이라도 복무 연장하겠다.	1	2	3	4	5
5. 전쟁이 일어나 다시 부대 배치를 받는다면 보다 전방부대로 가고 싶다.	1	2	3	4	5
6. 일반적으로 부대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1	2	3	4	5
7. 현재 나의 직책(보직)은 다른 직책(보직)에 비하여 만족스럽다	1	2	3	4	5
8. 군대가 전투(작전 등)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나의 직책(보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1	2	3	4	5
9. 부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재미있다.	1	2	3	4	5
10. 부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만일 나에게 직책(보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바꾸지 않겠다.	1	2	3	4	5
12.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부대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3.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요즘 부대는 매우 잘되어 간다고 본다.	1	2	3	4	5
14. 대체적으로 나는 부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본다	1	2	3	4	5
15. 우리 부대 훈련정도와 군기상태는 아주 훌륭하다고 본다	1	2	3	4	5
16. 우리 부대의 모든 지휘요원들이 대원들에게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7. 우리 부대의 모든 지휘요원들이 대원에게 한번 약속했던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1	2	3	4	5
18. 군대가 대원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9.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을 때도 나의 심정은 전혀 괴롭지 않다.	1	2	3	4	5
20. 제대할 때 나의 군대에 대한 인상은 아주 좋을 것이다.	1	2	3	4	5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계급은?

- ① 이경 ② 일경 ③ 상경 ④ 수경

2.. 귀하의 건강상태는?

- ① 아주 건강하다 ② 대체로 건강하다 ③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 ④ 아주 건강하지 않다

3.. 귀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희망적이다 ② 비교적 희망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절망적이다 ⑤ 매우 절망적이다

-- 설문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